

# 압수수색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檢 반발’ 이유는?

영장발부 전 관련자 심리 입법예고 광주지검 ‘수사기밀 유출 등 우려’ 민변 “적정한 사법 통제의 일환”

압수수색 전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쪽에선 ‘압수수색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라는 반응이다.

6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원이 담당 검사를 포함해 사건 관계인을 대면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제58조의2)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압수수색을 앞둔 피의자나 관련 변호인 등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진 검찰의 영장 발부를 통제해 사건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집행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 사항에 집행 계획 추가했다.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1년 10만8992건에서 2022년 39만6671건으로 10여년 사이에 3.6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수(2011년 170만2897건→2021년 148만3102건)와 구속영장 청구건수(3만7948건→2만2589건), 체포영장 청구건수(5만9173건→2만7426건)가 크게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검찰은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광주지검 관계자 A씨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헌법 12조1항에는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개정

안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의 규칙으로 형사 심문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수사 기밀 유출의 우려도 제기했다.

A씨는 “심문절차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면 수사의 기밀과 보안이 유지되기 어렵고, 피의자 등에 의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 제보자 심문의 경우, 피의자가 제보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생기기도 한다”며 “수사는 검찰이 맡고 재판은 법원이 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법원이 개입하게 되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해놓은 대원칙이 흔들리게 된다”고 반발했다.

수사검사가 심문의 당사자가 되는 데 대한 부담 탓에 반대하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심문하는 건 현재도 가능하다. (검찰은) 서류로 말하는 직업이지만, 검사 입장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게 좋다”며 선을 그

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적정한 사법통제의 일환”이라며 환영했다.

민변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내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의 이번 입법예고에는 큰 의의가 있다.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을 수사 당사자가 아닌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이라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면 적절한 고지와 참여권 보장,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계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양기람 기자 lotus@jnilbo.com

## 외국인 마약범죄 잇따라 검거 건수 1년 새 58% ↑

광산경찰, 마약 판매 태국인 적발 ‘마약 유통 증가… 사전 예방 총력’

최근 국제 마약 유입·비대면 거래 등으로 외국인 마약·유통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마약 사범의 숫자는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 2021년 153명 검거에서 1년 새 241명으로 58%(88명) 급증했다. 올해는 3월까지 총 32명(구속 6·불구속 28)이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 이날 광주 광산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합성마약 야바(YABA) 등을 여러차례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각종 환각

성분을 섞어 만든 합성 물질이다. 경찰은 해당 장소에서 알약 형태의 야바 200정·대마초 25g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추방된 동포 B씨로부터 마약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 C(24)씨가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3월 목포의 한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을 밀매·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남열 광산경찰 강력2팀장은 “항정신성 약물 등을 비롯해 마약류를 유통·투약하는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지역 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마약 범죄를 사전 차단·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봄맞이 꽃 심기

경칩인 6일 광주 동구청 직원들이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대형 거리화분에 팬지 등 봄꽃을 심고 있다. 김양배 기자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봄에 떠나는 그리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